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저금리·저성장과 중국, 그에 맞는 경제경영서 나와야

글_공병호(경제·경영 전문저술가,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

외환위기 이후 우리는 숨가쁜 세월을 살아왔다. 구조조정이나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정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여전히 미완의 개혁으로 진행 중이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4단계로 거쳐 변화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첫 단계는 1998년,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이 실시됨과 아울러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고금리 정책으로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시기다. 전체적인 산업기반이 붕괴될 정도로 한국경제는 극한 상황에 내몰리게 됐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의 시기였다.

두 번째 단계는 1999~2000년, 세계경제 여건의 호전에 힘입어 경제가 활력을 되찾게 되는 시기다. 본격적으로 1998년 4/4분기부터 한국경제는 급속히 회복세로 돌아서게 된다. 1999년과 2000년의 2년간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경제성장률이 1998년 -6.7퍼센트에서 1999년과 2000년에는 각각 10.9퍼센트, 9.3퍼센트를 기록하게 된다. 한국경제의 회복에는 수출시장의 호조가 큰 역할을 하게 된다. 1999년 이후 세계경제는 1998년의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한국경제는 이를 잘 활용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30퍼센트 내외에서 2000년 50퍼센트까지 증가한다. 특히 수출 비중 가운데서도 세계 IT 경기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 IT 제품의 수출이 크게 확대되었다. IT제품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의 20퍼센트에서 2000년도에는 30퍼센트까지 확대된다. 결과적으로 IT 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의 7퍼센트에서 2000년에는 16퍼센트까지 늘어난다.

세 번째 단계는 2001년, 세계경제의 둔화와 함께 한국경제가 다시 침체기를 맞는 시기다. 정부는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등 내수중심의 경기운용으로 경기의 추가하락을 막는데 주력한 결과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 상황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네 번째 단계는 2002년부터 내수중심의 성장이 한



계를 드러내면서 행정부가 적극적인 부양책을 실시하게 된 시기다.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은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키고, 소비자금융의 확대로 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대외적으로 미국경제의 회복지연, 이라크와의 전쟁 등 경제여건이 점차 악화되면서 경제 성장세는 지속되었지만 경제 내에 불안감이 여전히 가시지 않는 실정이다.

가계의 총부채 규모는 1998년 184조 원에서 2002년 말에는 439조 원으로 4년 만에 무려 255조 원이 늘어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한국경제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의 54.6퍼센트에서 2002년에는 57.3퍼센트까지 늘어나게 된다. 요 몇 년 사이 한국경제의 나홀로 성장은 미래 소비를 끌어다가 소비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해도 무리가 아니다. 지난 5년간

한국경제의 변천과 현재의 상황을 잘 정리한 책은 김경원, 권수우 외 여러 명이 쓴 《외환위기 5년, 한국경제 어떻게 변했나》(삼성경제연구소)를 들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두뇌들이 참여해서 마련한 이 책에는 그동안의 개혁성과에 대해서 그다지 후한 점수를 주고 있지 않다.

“대대적인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국내산업의 경쟁력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IMD에서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지표 가운데 산업경쟁력과 연관된 사업효율성과 인프라 구조를 보면 경쟁력 순위 향상이 눈에 띄지 않았다. 산업생산성이나 노사관계 순위는 오히려 더 하락하였다. 한편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주춤하는 동안 중국은 풍부한 내수 시장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선진기업들의 투자를 대대적으로 유치, 경쟁력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한편 고속성장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저성장이란 여전히 익숙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저금리와 저성장 경제일 것이다. 우리가 당면하게 될 현실을 비교적 잘 그린 책은 유경찬의 《제로시대 : 성장 신화는 끝났다》(씨앗을뿌리는사람)를 들 수 있다. 저자는 앞으로 한국경제에 몰아닥치게 될 바람은 ‘제로시대’, 즉 금리가 제로(0)인 시대가 될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이미 제로시대가 시작되었으면 디플레이션, 즉 장기불황의 충격이 머지않아 사회전반에 확산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성장의 침체와 취업전선의 붕괴, 소비와 투자의 실종 등 제로시대의 충격에서 벗어날 대책이 시급하다.”

나는 저자의 경고가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기업가들은 더 이상 투자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금수요는 급감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소비자들의 추가적인 대출에 대한 여지를 대폭 줄여놓았다. 게다가 이익단체들 요구뿐만 아니라 일부 낭만주의자들의 신념은 한국경제를 더욱더 견고한 성채로 만들어가고 있다.

앞으로 한국은 주력 상품들의 경쟁력이 중국에 의해 속속

접수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거대한 내수 시장, 집권층의 확고한 경제의지, 현장 사람들의 학습 욕구, 그리고 집중되는 외자와 기술이전 등이 맞물려 중국은 당분간 고속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제조업의 공동화와 대량실업, 특히 청년실업의 심화를 뜻하게 될 것이다.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어느 이코노미스트의 경고를 자기 문제처럼 받아들이는 한국의 지도층이 얼마나 될까.

한국경제의 어려움은 중국 때문이다. 전 인구를 다 합쳐도 4,700만여 명밖에 안 되는 한국이 매년 2,000만 명의 새로운 노동력이 공급되는 중국경제와 싸워서 승산이 없다. 노동력에 의존한 저부가가치 사업은 중국에 질 수밖에 없는 만큼, 지금 당장이라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확고한 의지와 심각한 위기의식에 바탕을 둔 한국경제에 대한 대책들은 나오지 않는다. 증가하는 이익집단들의 영향력, 표류하는 리더십, 집권층의 위기의식 부재, 경제문제에 대한 이해의 부족 등이 어우러져 한국경제는 앞으로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경제의 활력을 부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누구도 그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없다. 당장 눈앞에 편의만을 좇아서 가는 한 점점 심연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세계질서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이념적 성향에 치우치지 않는 실리 위주의 정책을 펴야 한다. 그것은 성역 없는 시장논리의 도입과 확산이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러나 총론은 찬성이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끝없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게 된다. 그래서 대다수 국가들은 중진국에서 주저앉고 한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게 된다. ☹